"올 해 놓치면 어렵다, 통탄할거다"

■ 이해찬 전 총리·정동영 전 장관이 말하는 추진 과정

범여권 대선 주장 중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을 각각 지낸 이해찬 전 총리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이 지지부진하다가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그 동안의 정부 노력과 자신의 역할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순천에서 가진 목회자 간담회에서 "총리를 하면서 미국이 대북 유화 입장으로 바꾸고 북쪽도 입장 선회해 (남북정상회담의) 좋은 기회가 올해라고 생각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느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5년, 10년을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올해 봄에 평양에 가서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승철 대남총책임자 등 고위층을 만나 '올해를 놓치면 어렵다, 통탄할 거다, 후회할 거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나는 사실 6·15 6주년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휴전협정을 했던 7월쯤, 늦어도 8월은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는데 8월은 안 넘겨 다행스럽다"며 "9월 호주 APEC에서 부시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 한반도 전쟁 당사국인 4개국이 모여 매듭을 짓자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4자회담이 열려서 한반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맺는 조약이 이뤄지고 북미, 북일수교가 되면 동북아평화체제가 오는 것이다"고 전망했다.

李 "평양서 김영남 등 고위층에 건의"

鄭 "2005년 합의 했는데 미국이 훼방"

정 전 의장도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 시절이던 2005년 6월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원칙과 장소를 서울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를 합의했고 우리측이 9월 중 개최를 제안했다"며 "그런데 9·19 공동성명 다음날인 9월20일 미국이 BDA 문제를 걸면서 훼방을 놔 빗장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이 귀엣말로 '좋은 소식을 내려보내겠소'라며 정상회담 날짜를 통보해 주겠다는 뜻까지 밝혔고 당시 배석했던 S선생을 채널로 지정했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도 "

하지만 참여정부가 원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올 8월 이내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는 평화선언까지는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수교를 맺게 되면서 한반도의 불안전한 평화는 확고한 평화체제로 굳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해봅시다" 범여권 대선 주자인 정동영(왼쪽)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천정배 전 장관이 8일 오전 9시 광주공원에서 열린 십자가대행진 광주 출정식에 참가, 악수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신임 장관 내정자 프로필

대학총장·청렴위원장 등 경력 다양

정성진 법무

사시 2회 출신의 엘리트 검사 경력에 대학총장과 사법개혁추진위원, 국가청렴위원장 등의 다양한 경력을 쌓아 법무장관으로 적격이란 평을 받고 있다.

2004년 8월 청렴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 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지난 3년간 신설조직인 청렴위의 조직과 제도를 완비하고 시스템화하는데 공헌했다. 부인 서신덕씨와 2남1녀.

▲경북 영천(67) ▲서울대 법학과 ▲법무부 기획관리, 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국민대 총장 ▲부패방지위원장 ▲청렴위원장

기획원·예산처 거친 정통 경제관료

임상규 농림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치면서 경제기획과 예산문제를 다뤄온 정통 경제관료. 지난 1월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후 18년간의 해묵은 갈등과제였던 '장항산단 문제'를 해결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두주불사형' 애주가로 따르는 후배가 많다. 부인 유경희(53)씨 사이에 2남.

▲광주(58) ▲광주제일고, 서울대 금속공학과, 행정학과 ▲미 시라큐스대 대학원 ▲행정고시 17회 ▲재경원 물가정책과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기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한국 'IT 일등국가' 만들기 큰 역할

유영환 정보통신

행시 21회의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2003년 정보통신정책국장 재직 당시 참여정부의 IT(정보기술) 정책인 'IT 839' 전략을 입안하는 등 한국을 'IT 일등국가'로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행시 21회 최연소 합격자로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다 지난 96년 정통부로 자리를 옮겨 정보화제도과장, 기획총괄과장, 공보관을 거쳐 정보통신정책국장을 지냈다. 부인 손지원(43)씨와 1남1녀.

▲서울(50) ▲한성고, 고려대 무역학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동원증권 전략담당 부사장 ▲정통부 차관

경제기획·정책조정·예산 경험 풍부

윤대희 국조실장

장관급 승진 '0순위 후보'로 꼽혀온 정통 경제관료. 행시 17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경부 공보관, 국민생활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거치는 등 경제기획, 정책조정, 예산, 물가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인천(58)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17회 ▲재경부 공보관 ▲민주당,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정책수석

박준영 지사 '남다른 감회'

2000년 첫 회담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참석

"1차 회담시 합의된 내용들 진전될 수 있기를"

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접한 박준영 전남지사의 감회는 특별했다.

지난 2000년 6월 개최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 겸 대변인으로 직접 참석했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박 지사는 이날 "오는 28~30일 평양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첫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회담이 열리지 못해 줄곧 아쉬웠다"며 "7년만에 열리게 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1차 회담시 합의된 내용들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등을 논의하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차 회담 당시의 일화도 곁들였다. 그는"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인만큼 남북 양측이 합의문 문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다가 밤 12시가 돼서야 발표할 수 있었다"고 돌아보았다.

박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이 장소 구애없이 서로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남북은 헤어진 기간이 오래된 만큼 신뢰회복을 통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일궈내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박광태 시장 "참 반가운 일"

"냉전시대 종식 통일의 길로 접어드는 의미

남북간 경제·문화·인적교류 활성화 기대"

이와 함께 박광태 광주시장도 이날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회담은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의 길로 접어드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햇볕정책이 더욱 공고히 되고 남북간의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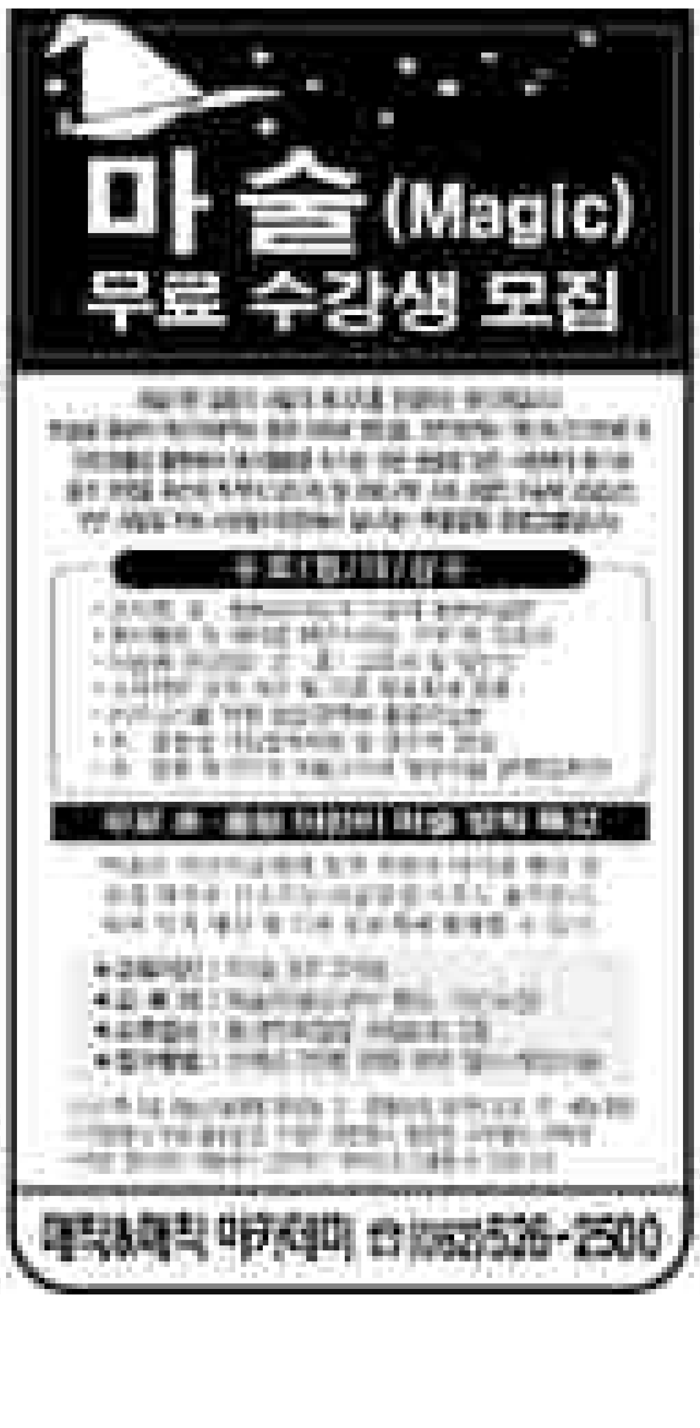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孫 전 지사는 범여권 경쟁 흥행요소"

신기남 전 의장 평가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은 8일 범여권 대선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손 전 지사가 범여권에 오면서 오히려 (범여권 대선 경쟁의) 흥행 요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전 의장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한나라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범여권 세력내에서 손 전 지사를 왕따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밝힌 뒤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의장은 그러면서도 "노선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손 전 지사에게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